

#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 난 예수의 날빛이요 God You're So Good /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다같이
대표기도		전승엽
*성경봉독	살후2:1-4, 3:10-13	김지환
말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자들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성도의 노래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김태동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 응답찬양

### 성도의 노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요케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 자들 (살후2:1-4, 3:10-13)

1 형제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3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송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13 형제들이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세워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곧 일어날 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믿었는지, 그 결과는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2천년 후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초대교인들, 심지어 주님과 3년간 삶을 함께 한 사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곧 일어날 일로 생각했던 것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천사들의 증언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요14:2-3, 행1:11, 계22:7, 12 등) 여기에 그들의 억압받는 삶의 환경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신앙을 지켜갔고, 참담한 현실을 뛰어넘는 소망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분명 예수님은 ‘그 때를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막13:32-33, 마25:13 등) 그러나 가혹한 현실을 살던 초대교인들은 재림의 때를 기약없이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히 오리라”는 말이 그들에게 훨씬 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그들에게 종말신앙은, 곧 일어날 일을 바라는 실재적(實在的) 믿음이 되었습니다. 비록 때는 틀렸지만 이 신앙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신앙을 지켜온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로 헬라인들로서, 경건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재림이 늦어지면서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문제와 재림의 때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바울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첫번째 서신에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먼저 일어날 것을 말해줍니다. 때에 관하여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린 문제이지만 그 날이 도적같이 임박하여 올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이것을 들은 성도들은 바울의 진의를 오해합니다. 헬라철학이 가르친 이원론적으로 종말을 오해해서, 곧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세상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따라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영적 향유만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려는 모습이 생겨났습니다. 전형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태도입니다. 이처럼 종말신앙에 관해 두 가지 대표적인 잘못된 형태는 시한부 종말론자와 종말 무관심론자입니다.

이에 바울이 재차 권면의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기서 그는 성도들에게, 사람의 소리에 현혹되거나 미혹받지 말고, 오직 성경에 입각해서 종말을 이해하며, 특별히,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야말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말고, 종말 무관심론에도 빠지지 않으며, 건강한 종말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한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종말론은 지금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적그리스도, 환란, 재림, 휴거, 천년왕국, 최후심판의 순서가 무엇인지, 또 그것들이 실제 일어날 것인지 상징인지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다른 분야입니다. 저는 종말론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흐릿하게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흐릿하게 계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흐릿한 계시를 선명하게 해석하려는 노력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권면처럼 건강한 종말신앙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종말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종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재림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약자를 보호하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시며, 스스로가 겸허하게 오셔서 모진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 분이 만물 위에 놓고 존귀한 영광의 모습으로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뱀에 의해 빼앗긴 에덴을 새 에덴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신자들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을 경험하고, 모든 애통과 질병과 사망이 종식되며, 하나님의 환희의 사랑의 세계에서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창조세계를 깨뜨린 장본인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어린양을 통해 받게 됩니다. 이 때, 신자도 정결케 하는 사랑의 불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심판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심판은 자비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 말씀산책

마지막으로, 건강한 종말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초대교인들처럼 이러한 실천적 재림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묵상 질문

1. 그 동안 나의 모습은 시한부 종말론자에 가까웠나요, 종말 무관심론자에 가까웠나요? 왜 그랬다고 생각되나요?
2. 최근 학계에서도 ‘종말론’이란 명칭 대신 ‘소망’이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내게 ‘소망’이 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3.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는 내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적용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란 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파송찬양

###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닦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예배시간 : 매 주일 오후 1시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예배도중에는 이동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ECO 텍사스 노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  
기간: 5/28-9/24

팀원 모집

기획팀 - 행사 기획등을 도와주실 분 (문의: 정재인)  
라이드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 장민구)  
찬양팀 - 남/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드럼 (문의: 조학영) -----> **청년부 신앙 AR**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규상) -----> **예배팀 신앙 AR**  
미디어팀 - 주보 편집에 관심 있으신 분 (문의: 안혜성)

리더임명

회장-김태동  
총무-조학영

목자

김보배(부:김동은, 유건이), 김장영(부:미정), 양병덕(부:임은지), 원태연(부:남원우, 최지연), 유준상(부:노헨리, 이지윤), 이환(부:김유진, 김지환), 전승엽(부:경혜리), 전춘우(부:지상희), 조영호(부:전하영), 조학영(부:이종호), 최조나단(부:강현아)

팀장

박규상(예배팀) 안혜성(미디어팀) 박사론(새가족팀) 정재인(기획팀) 전하영/전승엽(찬양팀) 김윤환(라이드팀)

2023 제 3기 중보기도세미나 및 중보기도학교

일시 : 9/23~10/7 (토요일, 3주과정), 오후 2시 (2층 청년부 예배실)  
홈페이지 및 로비에서 등록

23-2기 일대일 인도자반 모집

9/26~11/28 (화요일, 현장 8주과정)  
접수 : 로비 부스 및 성진원 집사 (jinwons@gmail.com)

Youth 교사 모집

Youth 사역을 사랑과 열정으로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 김지현 집사 (512-762-0002)

음악찬양부

호산나 반주자 청빙  
신청 : akpc-music@akpc.org ( 9/10까지)

영유아부 교사 모집

한 사람의 성품과 인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영유아시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로 자라나도록  
사랑으로 영유아를 케어할 수 있는 청년 선생님들을 구합니다.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 AKPC PSALM\_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새가족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	-----	------------------

## 양육과정안내

###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 에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

